



이연경 0.01초차 승부 女단거리 최초 AG 금

100m허들 금빛 질주

한국 여자 단거리 육상의 대들보 이연경(29·안양시청)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연경은 25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23 만에 결승선을 끊어 나탈리아 이보니스카야(카자흐스탄·13초24)를 0.01초 차로 제치고 1위로 끝냈다.

이로써 이연경은 한국 여자 단거리 트랙 종목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한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서 임춘애가 800m와 1500m, 3000m를 석권하는 등 중장거리 트랙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따낸 적이 있지만 단거리에서는 금메달을 따낸 적이 없다.

1978년 방콕 대회에서 이은자가 여자 200m 은메달을 따낸 것이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연경은 또 1986년 서울 대회의 임춘애 이후 24년 만에 트랙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낸 주인공이 됐다. 필드까지 포함하면 2002년 여자 창던지기 금메달리스트 이후 8년 만이다.

오랜 훈련으로 다진 이연경의 노련한 기술이 빛나

국가별 메달 순위 (25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77	98	90
2	한국	72	59	85
3	일본	37	68	82
4	이란	19	11	23
5	카자흐스탄	12	17	32
12	북한	5	10	18

레이스였다. 뒷바람도, 맞바람도 없는 고요한 경기장에서 7번 레인에 들어선 이연경은 흥성 소리가 나자 0.133초 만에 달려나갔다. 이보니스카야(0.129초)에 이어 2위. 그러나 스피드가 달랐다. 이연경은 중반까지 중위권에서 달렸고, 마지막 허들이 가까워올때까지도 선두로 치고 나서지 못했다. 후반 들어서도 체력이 떨어지지 않은 이연경은 침착하게 질주를 계속했고, 앞선 선수를 하나 둘씩 제치고는 이보니스카야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끊었다. 이연경은 전광판 가장 높은 곳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확인하자 환호하며 태극기를 몸에 감고 최고의 순간을 만끽했다. /연합뉴스



리듬요정들 메달 실패... 오늘 개인전

25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 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단체전에서 한국의 손연재가 후프 연기를 하고 있다. 신수지(19), 이경화(22), 김윤희(19·이상 세종대), 손연재(16·세종고)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은 25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리듬체조 팀 경기에서 출-후프-볼-리본 4종목 합계 255.850점을 획득, 일본(256.450점)에 소수점에서 뒤져 4위에 머물렀다. 26일엔 개인전 메달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남자농구 金이나 銀이나

일본 꺾고 중국과 오늘 결승

한국 남자농구가 일본을 물리치고 광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했다.

유재하(모비스)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5일 중국 광저우 인터내셔널 스포츠 아레나에서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농구 남자 준결승 일본과 경기에서 55-51로 이겨 은메달을 확보했다.

한국은 26일 밤 8시(한국시간) 같은 장소에서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 중국은 이란과 준결승에서 접전 끝에 68-

65로 이겼다. 한국 남자농구는 2002년 부산 대회 우승 이후 8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10점을 앞서던 4쿼터 막판 일본 오카다 유스케에게 3점포와 자유투 2개를 연달아 얻어맞고 경기 종료 1분22초 전 52-47까지 추격을 허용했지만 경기 종료 39초를 남기고 조성민이 자유투 1개를 넣어 한숨을 돌리며 승리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김주성이 13점을 넣고 리바운드 9개를 잡아냈으며 조성민은 3점슛 3개를 고비마다 터뜨리며 12득점을 올렸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중국이 이란을 68-65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62-63으로 뒤진 경기 종료 1분10초 전 왕즈즈의 3점슛으로 승부를 뒤집은 중국은 65-65로 맞선 경기 종료 13초를 남기고 왕스핑이 3점을 꽂아 가까스로 이겼다. /연합뉴스



지동원 위기의 흥명보호 구했다

〈전남 드래곤즈〉

동점·역전 헤딩골 동메달 사수

광양 출신의 지동원(전남)이 침몰 위기의 흥명보호를 구했다. 흥명보호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은 25일 광저우 헨스타디움에서 치러진 이란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4-3 통쾌한 역전승으로 '이란 징크스'를 깨고 동메달의 기쁨을 맛봤다.

지동원은 2-3으로 뒤지고 있던 후반 43분과 44분 연속해서 동점골과 역전골을 터트리며 4-3 승리의 수훈감이 됐다.

한국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헌납하며 힘들게 경기를 끌었다. 전반 인저리 타임에는 알리야스가 리데하기 하미드레자에게 추가골을 내주며 맥없이 전 반전을 맞았다. 주장 구자철(제주)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후반 3분 구자철이 페널티지역 오른쪽 부근에서 시도한 왼발 중거리슛이 이란의 골 그물을 갈랐다.

한국은 곧바로 이란의 안사리 파르드 카림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했다. 1-3으로 패색이 짙어지던 후반 33분, '와일드카드' 박주영의 추격골을 신호탄으로 한국의 대역전극이 전개됐다.

교체투입된 윤빛가람(경남)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서정진(전북)에게 볼을 밀어줬고, 서정진은 곧바로 반대편으로 크로스를 내줬다. 볼을 이어받은 박주영은 눈사람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더욱 거세게 이란을 몰아친 한국은 마침내 후반 43분 동점에 성공했다. 지동원은 서정진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받아 골 지역 왼쪽에서 헤딩골을 날리며 동점골을 터트렸다.

지동원은 1분 뒤에는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윤석영(전남)의 크로스를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하게 머리로 받아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꽂아 넣으며 한국의 승리를 이끌었다. /연합뉴스

남자 레슬링 끝내 '노골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처음

여자유형 3체급 오늘 메달 도전

한국 남자 레슬링 대표팀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끝내 '노골드' 수모를 면치 못했다.

한국은 25일 광저우 화강체육관에서 열린 남자 자유형 마지막 날 96kg급과 120kg급에 각각 김재강(23·성신양회)과 정의현(23·구로구청)이 출전했지만 모두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김재강은 칼리드 사예드 하세미(아프가니

스탄)과 바흐룬 친출룬(몽골)을 물리치고 준결승까지 올랐지만 우승 후보 레자 야즈다니(이란)를 만나 세트 스코어 0-2로 무릎을 꿇었다.

정의현 역시 8강전에서 람레이(중국)에게 세트 스코어 1-2로 져 탈락했다.

이로써 한국 남자 대표팀은 이날까지 그레코로만형과 자유형 14체급 경기에서 한 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하고 대회를 마쳤다.

남자 대표팀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지 못한 것은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28년 만이다.

이날 시작한 여자 자유형에서도 한국은 첫 경기에서 결승 진출을 노렸지만 실패했다.

한국은 대회 마지막 날인 26일 여자 자유형 55kg급과 63kg급, 72kg급에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금메달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Shin Yang Park Hotel Dinner Show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Sunflower Dinner Show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Mer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

주최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 062) 228-4711~2